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지스트' '광주에서 세계로'



1 '지스트 컨벤션 센터'로 새롭게 도약하는 오룡관 2 사회공헌단 '피움(PIUM)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GIST)는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동시에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열린 캠퍼스를 지향한다. 지역 발전은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성장과 맥을 같이 하기에 지스트가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짝 대학문을 여는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다.

지스트에 들어서면 1천여 명을 수용하는 다목적 건물 '오룡관'이 자리 잡고 있다. 지스트는 오룡관 운영전략을 새롭게 마련해 오룡관이 지역과 전국을 연결하는 미래비전 사업의 '빅 게이트' 역할을 하도록 준비 중이다.

먼저 오룡관을 '지스트 컨벤션 센터'로 새롭게 이름 지었다. 건물 내부를 아트갤러리 형태로 구축해 누구나 언제든지 들어가 즐기며 활용하는 공간이 되도록 새롭게 단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오룡관은 행사가 열릴 때를 제외하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관을 통한 대내외 행사 개최를 줄인 상태였다.

하지만 이제부터 오룡관을 지역민에게도 전면 개방해 지역 교류와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개방과 포용 전략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 모두의 열린 문화공간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는 새로운 시설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기관 노출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지역에서 세계로'라는 지스트 브랜드 가치를 담아 기관 경쟁력을 높이려는 김기선 총장의 경영철학이 담겼다.

적극적인 대관 마케팅도 마련한다. '지스트 컨벤션 센터'의 장점을

활용해 전시회 및 회의, 학회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고품격·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 행복과 만족을 목표로 지스트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스트는 이미 모범적으로 수행 중인 건전한 과학문화 확산 및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이어간다.

2021년에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각종 제한 속에서 이공계 특화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사회공헌단 '피움(PIUM)'을 출범했다. 이를 통해 ▲ 온라인 랜선 멘토링 ▲ 찾아가는 과학 캠프 ▲ 온라인 과학 토크 ▲ 영재 과학 캠프 ▲ 환경 걸음 기부 챌린지 ▲ 과학 스쿨 등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했다. 올해도 코로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구상한 다양한 지식 나눔 활동을 활발히 펼칠 예정이다.

김기선 총장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오늘날 지스트로 성장하도록 도와준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며 "시민과 함께 '모두가 주인인 학교', '열린 지스트'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미래 과학의 코어칩 GIST

지스트에 집약된 과학기술력
다가올 AI 시대를 선도합니다



2023 학년도 지스트 입학안내 <http://admission.gist.ac.kr>